東亞日報

發行所 京城府花洞一三八番地 株式會社 東亞日報社 發行兼編輯人 印刷人 電話 振替口座京城

生存權 聯合會建議의一節

朝鮮靑年會聯合會執行委員會에서 第三回總會에 對하야 建議한 決議案을 觀하건대 그 一節에 「萬人의平等한生存權과 産業的權利를確保함에 비로소 實地의 價値가 生함을 宣言함」이라 하는 部分이 有하니 此는 容易치아니한 斷案이라 吾人의 觀察에 依하면 此決議案의 根本精神은 單히 朝鮮社會에 在하야 唯新한 社會思想일뿐아니라 先進文明諸國에 在하야서도 社會主義的 思想家 以外에 或은 社會主義的 團體以外에 如此히 高貴한 急激한 根本的 精神의 發露는 可히 求하기 難하겟도다 그 所謂 生存權은 무엇을 意味하며 그 所謂 産業的 權利는 무엇을 意味함인고 吾人은 玆에 學理的 研究를 行코자하지아니하며 더욱 社會主義的 思想을 宣傳코자하지아니하노라 다만 朝鮮人의 實地의 事情을 基本하야 朝鮮靑年界에 漸次로 浸潤하는 思想의 傾向을 率直히 말하야써 一般社會의 參考에 供코자하노라

十八世紀革命時代에 在하야는 一般學者와 一般의 民衆이 自然的 權利의 存在를 是認하얏스며 그 觀念에 基本하야 社會哲學을 建立하얏스나 十九世紀以後 二十世紀에 入하야는 所謂權利는 必然히 社會의 存在를 意味하며 或은 前提하는것이오 決코 社會를 離하야 社會와 分立하야 存在하지 못할것인것을 確認하게되얏스니 大槪 權利는 社會的 産物이오 國家的 現象이라 國家가 是認하지아니하고 社會가 保障하지아니하는곳에 엇지 權利가 成立하며 비록 成立한다할지라도 엇지 그 效果를 奏하리오 이에 自然的 權利라함은 權利承認의 標準을 示함이라하는 意味以外에는 何等價値가 無하니 然則 所謂 生存權이라하는것은 目下文明列國에 在하야 임의 社會的으로 是認한 權利인가 吾人은 몬저 此問題에 對하야 一考코자하노라

現代文明列國은 그 如何한 國家를 勿論하고 吾人의 身體의 安全을 保障하며 吾人의 生命의 侵害를 防禦하며 吾人의 財産의 安固를 期圖하는도다 吾人은 此保障과 防禦와 企圖下에 吾人의 財産과 身體와 生命의 安全을 得하는도다 然則 現代國家는 吾人의 生存權을 是認하며 單히 是認할뿐아니라 그 權利를 擁護하기 爲하야 國力의 全部를 傾注하며 眞實로 社會制度와 모든 秩序의 根本을 此權利上에 置하는것이 아닌가할것갓흐나 그러나 그 實은 此는 皮相에 不過하고 決코 그 眞相에 透徹한것은 아니로다 國家는 勿論 吾人의 身體를 保護하는도다 그러나 此는 身體에 對한 他로부터의 侵害를 保護하는것이오 決코 그 身體自體의 養育을 保障함은 아니며 國家는 勿論 吾人의 生命을 保障하는도다 그러나 此는 單히 吾人의 生命이 他의 侵害에 依하야 危險에 陷하는 境遇에 對한 保障이오 決코 그 生命自體의 維持發達을 保障함은 아니며 또 國家는 勿論 吾人의 財産의 安固를 期圖하는도다 그러나 吾人이 財産 그 自體를 獲得함에 對하야는 何等의 施設이 無하도다 換言하면 現代國家는 財産잇는 者를 保護하는도다 그러나 財産업는 者의 生活資料는 保障하지아니하며 身體에 對한 危害 生命에 對한 危險을 保障하는도다 그러나 그 生命을 그 身體를 維持하는 根本所以인 生活資料에 對하야는 何等保障이 無하니 生活資料의 保障이 無한지라 엇지 그 生存의 權利를 認定하얏다하라 오 生産消費의 全責任을 個人의 負擔에 歸케하고 國家가 此에 對하야 考慮치아니하는 그 우에 自由競爭의 原則을 是認함은 決코 國民과 人民의 生存하는 權利를 生存코자하는 欲望의 充足을 社會가 認定하는 道理가 아니로다 現代社會制度와 經濟組織과 國家의 任務에 對한 根本的 缺陷이 이니라 吾人이 主張코자 하는 바는 靑年會聯合會의 總會를 通하야 朝鮮의 全靑年이 一層高貴한 一層光彩잇는 文明과 新社會의 出現을 期待하는 朝鮮의 全生存의 根本權을 主張코자 하는 바는 곳 單히 朝鮮社會에 在하야 新唱이오 新運動일뿐아니라 實로 全世界全文明制度에 對한 根本的 革新의 喊聲이 眞實로 此를 是認할것이며 或은 一時的 革新의 各種運動이 從起할것이라 이 吾人이 同決議案의 精神을 指摘하야 最新한 社會思想의 發露이라하는 所以이니 朝鮮의 一般社會는 此에 對하야 如何한 感이 有하며 더욱 爲政家는 如何한 觀念을 抱持하는가 吾人은 此에 附隨하는 産業的 權利에 對하야 다시 機를 보아 論評하려니와 爲先 이 人道的 文化的 大目的 大理想論에 對하야 批判 討論 研究가 盛行키를 바라노라

歐洲思想의 由來 (七三)

第六章 最近代思潮 (續)

八、世紀末哲學(續)

無論新理想主義라 할지라도 的한 理想主義의 定形을 取한 것이 아니오, 또 無論前代의 理想主義를 그대로 繼承한 것도 안이라 深히 現實主義의 精神에 立脚하고 更히 그 基礎上에 建築한 新意味의 理想主義에 不外하나니 [illegible] 現實主義로서 直進코져한 哲學도 多數見出하얏스니 從하야 新理想主義라는 言語는 單히 大體의 傾向을 表示하는 符號에 不過한 것으로 吾人은 次와 如한 種類를 數하노니(第一)專히 英米에 發達한 [illegible] 요特히 獨逸의 니체로 因하야 主張된 價値本位의 哲學(第三)佛國의 生命哲學, 此外 獨逸에 新칸트派의 新理想哲學의 發達함은 世間 周知의 事實이니라

(一)푸라그마티즘 亞米利加의 위리암・젬스와 및 촌・쥬위 또 英吉利에 在하야는 시라ー等으로 因하야 唱道된 푸라그마티즘(實際主義)은 確的히 世紀末哲學界의 一種의 偉觀이라 푸라그마티즘의 哲學이 專히 英米에 [illegible]는 新로만티시즘의 哲學으로 看做할것이 아니라 몬저 認識論에 立脚하야 古來의 哲學就中 理想主義의 哲學에 附隨한 眞理論과 및 絶對論을 極力排斥한 곳에 푸라그마티즘의 新主張이 存하니라 眞理의 眞理인 標準은 明瞭自明 何等의 矛盾도 包含하지 아니한 것이라 함이 古來普通의 眞理論이나 푸라그마티즘은 此等 空漠한 眞理論은 將來의 哲學이 되지 못하는 것이오 眞理에는 眞理로서 非眞理로부터 區別될 實質한 標準이 無하면 안이 된다 主張하며 또 人智는 흔히 相對的이오 決코 絶對的이 되지 못하나니 絶對의 眞僞라 함은 오족 神의 世界에서만 言할것이오 人間界에 在하야는 온갓것이 相對的이 아니면 아니된다 함이 또한 푸라그마티즘의 主張이로되 그러면 푸라그마티즘의 主張은 純粹한 經驗哲學이니 經驗哲學의 一種이라 謂할지며 此意味에 在하야는 本來의 英國經驗哲學의 方面으로부터 發達한 것이라 謂할지니 十九世紀에 現實思想의 異常한 發達은 此를 哲學的 觀察點으로부터 觀하면 經驗主義ー 經驗은 一切 事物을 産出하는 根據로 觀하는 經驗主義ー의 異常한 發達이라 謂하지 안이하면 안이될지니 現實思想과 經驗派哲學은 異名同體라 從하야 十九世紀에 在하야 經驗主義의 哲學이 푸라그마티즘이라는 嶄新한 形을 取하야 發達함은 極히 自然한 順序라 謂할지라, 此點에 在하야 更히 觀察點을 變하야 論하면 英國固有의 啓蒙思想은 經驗哲學이니 經驗哲學은 바로 英國 無論哲學이 가장 顯著한 現實思想의 精髓인 故로 푸라그마티즘은 卽 英國經驗哲學이 [illegible] 을 取하야 發達한 것이라 말할지 안이하면 안이 될지니 英國固有의 經驗思想의 時代的 現實的 傾向의 刺戟을 受하야 一種特別한 形을 取하야 出現한 것이 곳 푸라그마티즘이라 故로 푸라그마티즘과 英國固有의 功利主義와는 其間에 極히 親密한 關係가 有하야 功利主義의 精神을 分離하지 못할지라 푸라그마티즘의 實利 또는 實用은 英國傳來의 功利 또는 便利에 不外하나니 此意味에 在하야 푸라그마티즘은 또한 功利主義가 認識論의 形式을 取한 것에 不外하니라 대개 푸라그마티즘의 中心主張은 온갓 眞理의 標準은 結局 實用 또는 效用에 存하나니 換言하면 한갓 明瞭이라든지 自明이라는것이 眞理의 標準이 아니오 眞理라는 것은 結局 人生의 生活에 實用을 致하는 것 實利를 與하는 것이라 從하야 實利實用을 致하지 아니하는 것은 卽 非眞理에 不外하다 批判하나니라 함이 푸라그마티즘의 中心主張이니라 푸라그마티즘의 倫理學도 結局 功利主義의 發達한 것임에 不外한지라 人生의 生活을 各種慾望의 爭鬪로 觀하야 一切의 慾望을 整理하야 最高의 統一과 調和를 與하는 곳에 眞正한 幸福이 成立된다 主張하니 卽 푸라그마티즘의 道

「맑쓰」思想의 槪要 (二五)

李順鐸(抄譯)

第三章 資本主義的經濟組織의批評(續)

第三節 剩餘價値說(續)

例컨대 一萬圓의 價値잇는 物件은 一萬圓의 값으로 賣買가 된다 함과 갓도다 勿論 現實社會에서는 物件의 賣買는 반다시 그 價値를 振興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이를 價値 以上으로 賣買하라고 할것갓흐면 파는 사람은 萬分의 利得을 엇는 代身에 사는 사람은 그에 相當한 損失을 하고 또한 이를 價値 以下로 賣買하라고 할것갓흐면 사는 사람은 餘分의 利得을 엇는 代身에 파는 사람은 그에 相當한 損失을 하게 되므로 結局 社會全體에 對해서 말하면 一方의 得과 他方의 損이 相殺되여서 社會上에는 그 實質에 依하야 何等 剩餘價値를 生치아니하게 되므로 物件의 賣買가 價値 以上 又는 價値 以下로 되얏다 하더라도 그 結果는 社會內의 엇던 一員으로부터 다른 一員에게 價値가 移轉된것 뿐이오 社會總體의 富의 價値는 그 때문에 조금도 增加하는 것이 아니니 故로 剩餘價値의 成立은 流通(貨物賣買)의 行程에서 이러나는 것이 아니오 生産(貨物製造)의 行程에서 이러날 것이라 따라서 剩餘價値의 成立을 研究하는 境遇에는 物件의 賣買는 總히 그 價値를 標準삼고 되는것이라고 假定하고 論을 進하야도 關係가 업슬지로다

如此히 貨物의 賣買는 總히 그 價値를 標準삼고 된다고 하면 事業家가 貨物의 賣買에 依하야 餘分의 利得을 엇을수가 업는 것인데 事業家는 一般으로 例컨대 十萬圓의 資本을 投下해가지고 이를 十五萬圓을 만드러서 回收하고 十萬圓의 資本을 投下해서 二十萬圓으로 回收하나니 이러하는 것은 엇던 種類의 資本家에게 限한 것이 아니오 資本家 階級全體가 恒常 投下한 資本을 增殖하야 回收하는도다 마쓰는 卽 이 投下한 資本과 回收하는 資本과의 差額을 命名해서 剩餘價値라 하고 이 흔것이오 또한 이 剩餘價値는 流通行程에서 生하는 것이 아니오 生産行程에서 生하는 것이라고 보앗도다

然則 剩餘價値는 如何히 하야 生産行程에서 成立되는고 하니 마쓰는 이 問題를 解決키 爲하야 人間의 勞働力이란 것의 賣買에 着眼하얏도다

旣述함과 갓치 今日의 無産者인 勞働者는 自己의 일하는 힘(마쓰의 所謂 勞働力)을 資本家에게 파는데 卽 勞働力이라 하는 無形的 商品은 恒常 資本家에게 팔게되는데 마쓰의 想究한 바에 依하면 今日에 賣買되는 商品가운데에서 이 勞働力이라하는 商品만이 餘分의 價値 卽 剩餘價値를 生하는 特性을 가젓도다 勞働力도 다른 商品과 갓치 或은 價値 以上으로 팔니고 或은 價値以下로 팔니는 수도 잇겟지마는 勞[illegible]에는 前揭한 假定을 따라서 勞働力이란 商品도 또한 그 價値는 엇더한 點에서 決定이 되는가 盖人間의 勞働力의 價値도 다른 갓다른 商品과 갓치 그 生産에 必要한 社會的 勞働의 分量에 따라서 決定되나니 卽 勞働者가 밧는 賃金은 勞働者 自身及其家族의 生活을 維持하는데 必要한 貨物을 만들기 爲하야 必要로 하는 平均勞働時間에 依하야 決定되나니 例컨대 一定한 社會에서 一家族 一日分의 生活必要品을 만드는데 必要한 勞働의 分量은 一人의 勞働者 二時間分의 勞働에 相當하다 하고 이를 貨幣로 當해서 二圓이라고 하면 一日의 勞働力은 二圓으로 賣買가 되나니 一定한 勞働者가 今日 一日間 일햇다고 하고 明日도 또한 繼續해서 갓치 그 勞働力을 써 排치아니치 못할것이라고 하면 彼는 반다시 一定한 食物 其他를 必要로 할지니 不衣不食하고 일을 繼續할수는 업는 것이라 또한 彼自身이 老衰하며 또한 死亡할때는 그 後繼者가 잇서야 할터이니 故若 업다고 하면 勞働力의 供給은 中絶되야 바리게 될지라 故로 勞働力을 繼續的으로 供給키 爲하야는 換言하면 勞働力의 生産을 繼續的으로 維持키 爲하야는 勞働者 自身及其妻子의 衣食住가 必要하도다 그러서 그 衣食住를 生産키 爲하야 社會的 勞働의 二時間分을 要한다고 하면 이 時間이 勞働者의 當却하는 勞働力을 生産하는데 必要한 社會的 勞働에 相當한 이니 假定金額으로 이를 二圓이라고 하면 勞働力의 代價 卽 勞働者의 밧는 賃金은 每日 二圓이 될지라

그런데 이 勞働力인 商品은 剩餘價値를 産한다는 一種特徵을 가젓나니 그 理由는 元來 人間은 自己가 消費한것보다 더 餘分의 것을 生産하는 힘을 가진 外에라 勿論 經濟狀態가 極히 幼稚한 時代에는 人間의 勞働力은 이러한 餘裕가 업섯지마는 一人이 일하야 進步함에 따라서 數人 數十人이 生活資料를 엇게 되도다 이러한 人間은 比하면 五의 勞働에 依하야 生産된것을 消費해가지고 十의 勞働을 할만한 힘을 가지게 되얏나니 그러케 됨으로 經濟社會는 次第로 進步하야 온것인데 今에 資本家는 이 點을 利用해서 比하면 勞働者에게 五의 갑을 支拂하고 그 勞働力을 사서 그 者의게 十의 勞働을 하게 함으로 於是乎 資本家의 손에 一定한 剩餘價値를 生하게 되도다 更히 前揭한 例에 依하야 說明하건대 假令 一定한 社會에서 一家族 一日分의 生活必要品을 만드는데 要하는 勞働時間을 二時間이라 하고 이를 貨幣로 量해서 二圓이라고 하면 總히 物件의 價値는 이를 生産하는데 必要한 勞働時間에 依하야 決定된다 하는 法則에 依하야 勞働者 一日分의 勞働力은 二圓으로 賣買될터이라 卽 資本家는 二圓의 賃金을 支拂하고 그 勞働者가 一日間 일하는 힘을 買收할수가 잇나니 이 境遇에 萬一 그 資本家가 勞働者로 하여금 一日 二時間式의 勞働만 하게 할것 갓흐면 資本家에게는 何等의 剩餘價値를 남길수가 업겟지마는 實際上 勞働者는 二圓의 賃金을 엇어가지고 이로써 그 生活上 必要品을 購入且消費하면서 生活을 維持하는데 그 二圓으로 購入하는 生活必要品은 實로 二時間分의 勞働으로 能히 生産할수잇도다 그러此히 彼等은 僅히 二時間分의 勞働으로 生産할수잇는 物件을 消費하면서 自己自身은 八時間 十時間乃至 十數時間의 勞働을 할수잇는 힘을 가젓슴으로 資本家는 勞働者의 勞働時間을 僅히 二時間

北京에서 (一)

―中國留學案內―

梁海淸(寄)

K兄!

二年前의 朝鮮과 오날의 朝鮮을 比較하면 勿論 여러方面으로 大端한 差異가 잇겟사오나 其中에도 第一 進步되고 또 우리의 將來를 爲하야 慶賀할만한 現狀은 靑年의 向學熱인줄 밋나이다。

民族의 興亡盛衰가 大部分 그의 文化程度 如何로 決定된다 하면 三年前 定員의 生徒를 募集하지 못하야 헤매던 모든 學校가 只今은 定員의 四五倍乃至十數倍가 되는 만흔 志願者를 處置할 길이 업서 苦痛한다는 말을 들을 때에 그누구나 우리의 將來를 爲하야 깃버 뛰지 아니하겟삽나잇가?

K兄! 우리의게는 이를 미듬 그러나 向學者를 收容식힘에 學校가 너머도 적습니다。志願者 五六人에 入學者 한나의 比例가 되온즉 그네들中 六分之五는 배우려하야도 배올곳이 업서 울고잇는 現狀이올시다。

그네들은 將來의 半島를 支配하고 第三의 民族을 敎育식킬 第二의 民族이라 그네들이 잘 배우고 못 배우는 것은 卽 우리 民族의 將來가 興하고 亡함을 意味함이니 이것이 엇지 우리 民族에게 對하야 死活의 큰 問題가 아니겟나잇가

K兄!

그러면 엇더케 하여야 이 問題를 解決할수 잇슬가요? 勿論 學校를 만히 設立하는 것이 第一 方針이겟고 第一 遠大한 方針이겟고 講習所라던지 夜學은 臨時的 必要手段이 될지오나 萬一 適當한 곳이 잇다하면 外國留學도 亦 그의 一策이라 하나이다。

여긔에 中國留學問題가 自然히 섬길줄 아옵니다. 大槪 米國留學 獨逸留學, 英國留學 法國留學이 모든것이 우리의게 不必要함은 아니나 우리의 現在事情으로는 암만하야도 이것이 普遍的이 되기는 어려울 뿐아니라 또 東洋에서 普通知識을 엇지 못하고 西洋에 留學하는것이 眞正한 效果를 엇을수 잇슬는지는 疑問이라고 할수밧게 업슴니다. 우리는 不可不 日本留學과 中國留學에 對하야 研究하지 아니할수 업슬가 하나이다.

K兄! 日本에 엇더한 學校가 잇고 費用이 얼마나 든다던지 그의 學制가 엇더하다는 것은 우리 同胞中에 임이 아는이가 만흔즉 그의 方針을 定함에는 別問題가 업슬것 가트나 中國留學을 希望하는 이에게는 이것이 큰 問題인것 갓습니다. 甚至於 新學期가 언제인지도 모르고 드러오는이가 殆半인즉 이러케 하면 엇지 失望과 後悔를 免할수 잇겟슴닛가?

弟가 아모 이는것도 업시 大하게도 이글을 쓰려고함은 卽 中國留學 志願人에 對하야 萬一의 參考가 될가 함이로소이다。

아래에 中國留學의 形便과 學生의 아라두어야할 몃가지를 簡單히 쓰겟사오니 참고하신 후 一覽하심을 바라나이다

强壯劑 壯筋肉 補氣血

初夏는 正히 服藥의 時다

大力丸

健全한 精神은 健康한 몸에 宿한다 (西諺)

發賣所 京城西小門外 洪濟堂藥房本舖 主 李敏淡

洋服實習學生二回募集

本洋行洋服部에서 洋服實習生을 第一回 募集하야 現今 敎授하는 바 成績이 良好하야 卒業後에는 七八十圓의 月收入을 可得하겟기 實習生을 增募하오니 또 晩時之歎을 마시고 速히 入學하시요

一、人員 六十名
一、開業日 六月七日
一、入學期日 六月十日
一、修業科目 紳士洋服 製造法 各種
一、卒業後 技術에 依하야 本洋行에서 採用又는 他處에 紹介도 함
一、學費 五十圓
但 寄宿舍의 設備도 充分인 바 食費는 一介月 十圓으로 定하되 初一朔은 十一圓으로 함

京城府西大門外竹添町二丁目七十一番地

世一洋行洋服部 洋服裁縫實習課 謹告

京城府武橋町五十七番地

辯護士 尹泰榮 電話 本局三二二番

今般本會員諸子의 便宜를 謀하와 左記條項에 依하야 本講義錄의 說明並히 質問에 應하겟사오니 此際新히 入會하시면 從來會員과 同樣의 特典을 享有하옴을 最好의 機會이오니 希望者는 一日이라도 速히 入會하시압소서

一、講義場所 長谷川町十七番地 朝鮮佛敎大會々館
一、日時 每日曜日午前八時乃至十時
一、聽講料 無料

通信敎授 高等普通學會 京城古市町二十三番地 電話本局三七〇二番 振替京城八八九五番

開業廣告

今般平壤慈惠醫院에서 職을 辭하고 三和醫院으로 讓受하와 一般診療에 應하옵기 玆에 謹告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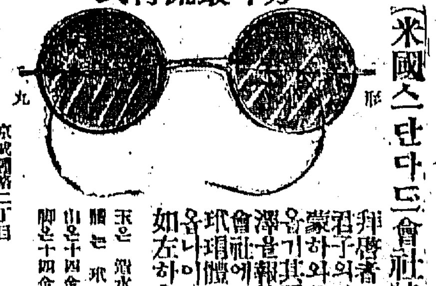
大正十一年六月一日

[illegible]十四番地 三和醫院 醫師 金養楨

洋服實習生募集

本所定期募集에 應하야 若干人을 募集하오니 有志諸位는 自五月二十五日 至六月二十日內에 志願書를 提出하시고 規則과 說明書는 返信料를 添하야 請求하시오

仁川府龍岡町八番地 半島洋服實習所 白



方今最流行式

米國스단다드會社特約店

拜啓者는 多年 僉位君子의 愛顧를 蒙하와 營業이 繁昌하옵기 其愛顧하시는 德澤을 報答키 爲하와 本會社에서 特製한 金張玳瑁體를 輸入하엿사오니 玳瑁體 價은 如左하옵나이다

一號 十圓 二號 七圓 三號 五圓 四號 四圓 五號 三圓

京城鍾路二丁目 眼鏡專門商本店 明眼堂 主 張聖元 告白

大人이 四月一日부터 本店에 洋服部, 洗濯部, ワイシャツ, ネクタイ, カラ, 帽子 販賣部 其他洋服附屬品 一切販賣

華山屋 主 催學洙

理髮機具界大權威

吉川藤四郎支店

ドクトル 女醫 中村齒科醫院

御禮

今番 KH式와이사쓰 發賣紀念景品付賣出하온바 多數히 枉臨하사 非常한 盛況中에 終了하와 感謝不已이오며 尙히 新荷가 續々着荷하와오니 變치마시고 愛顧하심을 바라나이다

當籤番號

一等 一、八七二 四等 四四九 七等 一、六〇七 九等 八三四 拾壹等 一九六
二等 五二 五等 一、三二 八等 八九六 拾等 六〇〇二
三等 一、七五一〇九
拾貳等 二八 拾參等 三五 拾四等
但 百番台에서 二十八은 全部 但 拾番台에서 三은 全部 但 拾番台에서 五는 全部

京城府本町貳丁目 明治町通

大和屋シャツ 赤帽印ネクタイ 特約店

富屋洋品店

汎太平洋商業會
六月十日「호노루루」에서

六月十日「호노루루」에 開催되는 汎太平洋商業會議에는 太平洋에 接한 各國全部가 招請되여 交通運輸 天然資源開發及保存 其他를 討議할터이며 招請狀을 受한 國은 二十個國에 達하얏는데 日本도 其中의 一이라더라(華盛頓四日發)

米國對聯國要求
對米負債償却問題에 關하야

米國政府는 聯合國에 對하야 對米負債償却에 對하야 代表를 華盛頓에 派하야 其提議의 大槪를 聽取키를 望한다는 請求를 行하얏스나 同答은 姑未到達이라더라(紐育三日發)

米要求總承認乎
來月開催의 海牙會議

海牙에서 六月十五日及二十六日의 兩次開催될터인 露國會議는 結局「섈」氏의「然則調停者가 되겟다」고 注文한바와 如히 되리라더라(海牙一日發)

米上院의 軍備豫算

米國上院은 陸軍을 十三萬三千人으로 減少하야 科學的戰備費를 五十五萬弗을 增額하기로 決定하얏다더라(紐育電)

慘虐調査에 米參加

米國政府는「아나드리아」에 在한 少數基督敎民族의 追放及彼等의게 對한 土耳其의 所謂慘虐行爲에 關한 調査를 行할터이라고 하는 英佛伊三國의 企圖에 參加할터이라더라(華盛頓三日發)

英佛協約再交涉

英佛協約의 交涉은 再次開始되얏다더라(倫敦電)

英保守內閣組織

英國上下兩院은 聯立內閣을 廢止하고 保守黨內閣을 組織할 事를 宣言하얏다더라(東京電)

獨內閣危機脫出

獨逸總相「헬메쓰」氏가 巴里에서 聯合國賠償委員과 協定한 獨逸의 新約束若干은 佛國首相「포앙카레」氏가 抗議하얏슴을 不拘하고 結局佛國內에서 承認하얏는데 獨逸國議會는 五日此를 通過할터이라 如何間「위르트」政府의 地位는 何等의 危險이 無케되얏다더라(伯林四日發)

米蘭銀行家賠償援助
―米國銀行家몰간

몰간氏, 和蘭뷔케링氏는 獨逸과 聯合國의 賠償協定遂行에 就하야 援助할터이라더라(伯林四日發)

墨革命計畫發表

「맥시코」「지자쓰」氏의 秘書는「오색레온」政府를 破壞코자 하는 墨西哥集會計畫을 發表하얏는데 右發表에 依하면 其革命黨은 一萬五千의 訓鍊잇는 兵士를 有하고 各國에 在한 領袖二十名을 召하야 頗히 迅速히 政策을 進行中이라 尙且右領袖等은「지자쓰」로 하여금 大統領을 復活케하야 一八五七年의 憲法을 復活코려고 努力한다더라(紐育一日發)

英國汽船沈沒

英國汽船「윈체스터」號(一萬二千噸)는「뉴―지랜드」沿岸의 暗礁에 觸하야 全部破壞하얏는데 旅客은 援助되얏다더라(倫敦四日發)

農露全權歸國

勞農露國首席代表 치체린氏는 歸國의 途에 就하얏다더라(「제노아」四日發)

銀行家會議
審議延期

銀行家會議는 其審議範圍와 賠償委員會의 權能과의 分界가 分明치 아니하야 昨日은 遂히 開議치 아니하얏다더라(巴里三日發)

徐總統退位通告
外交部對各國公使

外交部는 各國公使에게 對하야 徐總統은 退位하고 國務院이 其職權을 代行할 旨를 通告하얏스며 同時에 國務院은 代表를 黎元洪氏處에 派하야 急速히 入京하기를 勸하얏는데 黎氏는 想必四日入京할터이라더라(北京二日發)

外交關係無影響聲明
―周總理는 新總統

新任外자는 總統의 職務를 代理할터임으로 外交關係에는 何等의 變化가 無할 旨를 宣言하얏다더라(北京四日發)

王內閣組織固辭

王士珍氏는 黎元洪氏의 大總統下에 內閣을 組織하기를 不好하며 此를 固辭함으로 吳佩孚氏는 張紹曾氏를 推擧하얏는데 張紹曾氏는 吳佩孚氏의 親族이라더라(北京四日發)

北伐軍稍々優勢

北伐軍은 破竹의 勢로 其右翼은 贛州를 攻略하고 中央軍은 南康을 占領하고 連戰하야 崇義를 攻略하얏스며 又左翼軍은 贛州의 側面을 向하야 前進하야 湖南軍은 一帶의 山路로부터 贛州에 殺倒하얏슴으로 江西軍은 湖南路方面에 潰走한지라 南軍은 完全히 贛州를 占領하얏다더라(廣東三日發)

孫文氏廣東歸來
―孫文氏는 一日夜廣東에 歸來

孫文氏는 一日夜廣東에 歸來하얏는데 數日間滯在할듯하다더라(廣東二日發)

孫氏意氣揚々
―韶關의 大本營으로부터 歸來한

孫文氏는「北伐은 非常히 順調로 進行하야 湖南軍도 參加하기로 決한바 本隊는 岳州를 向하고 一部는 江西에 入하얏스며 且雲南으로부터(未詳)를 率하고 既히 柳州에 入하얏슴으로 不遠에 平定할터이라 陳炯明氏와 予와의 間隔을 論評하는 者가 有하나 問題가 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語하얏다더라(廣東四日發)

奉軍又退却開始

奉天軍은 更히 退却을 開始하얏슴으로 直隸軍은 間斷업시 追擊하야 前進中이라더라(北京電)

舊國會北京移轉

天津舊國會는 吳佩孚氏의 態度에 依하야 一兩日中에 北京에 移轉할 事를 決議하얏다더라(上海四日發)

廣西土匪猖獗

廣東三十一日來電에 依하면 廣西의 土匪는 益々猖獗을 極하야 林俊廷이 此를 統率하고 南寧을 陷落케 하얏는데 趙龍廷氏는 梧州에 入하야 梧州도 一時는 不安하얏스나 目下安全하다하며 馬君武氏도 梧州에 赴할터이라더라(奉北三十一日發)

辭表奉呈은 六日乎
政友會出身의 五大臣

五日의 總辭職에 關한 相議에 出席者는 政友會出身의 五大臣에 限하얏스나 當該大臣에는 想컨대 旣히 一應高橋總理로부터 相議한바가 有하얏스며 그리하야 五日의 閣議에서 總辭職을 決하면 直히 五大臣의 辭表를 六日의 定例閣議後에 奉呈하고 闕下에 伏奏하기로 되리라더라(東京電)

地가 無한바인데 從하야 五日의 黨內閣僚와 首相의 會見에 就하야도 其以前에 如何間 中橋, 元田兩氏의 決意를 促한다는 意味에서 政友會一部議員은 五日의 會見을 延期하려는 希望을 有하고 高橋首相外지 其旨를 申請하얏는데 而今에 至하야 五日의 會見延期는 到底不能하며 從하야 五日의 會見은 實로 右委員對兩相과의 交涉如何에 不拘하고 開催되는 것으로 推思되는바 恐컨대 改造던지 總辭職이던지 何等具體的發展이 無히 終了하리라고 觀測된다더라(東京電)

改造運動再燃
黨務委員會

四日의 政友會黨務委員會에서는 各委員元田中橋兩相에게 對한 非難攻擊이 續出하야 直히 除名하라고 外지 極論하는 者가 有하얏스나 結局委員으로부터 兩相의게 對하야 此際에 反省辭職하고 首相으로 하야금 改造를 實行케하야 此難關을 除去함이 宜當하다는 勸告를 하기로 되얏스며 右委員은 五日午後三時부터 兩相의 私邸를 訪問하고 勸告를 하기로 決定하얏다더라(東京電)

注目할 一任決議
兩相에 壓迫辭職

黨務委員會에서는 政局에 關한 問題는 高橋總裁에게 一任하는 旨의 決議를 하얏는바 五日의 議員總會에서도 同樣으로 高橋總裁一任決議를 行할터이며 是等諸件이라 要컨대 元田中橋兩相을 壓迫하야 兩相으로 하야금 自發的으로 辭職케하려는 方策에서 出함이라더라(東京電)

改造派懇話會
四日의 議長官舍

政友會有志議員은 四日午後三時부터 衆議院議長官舍에서 懇談會를 開하고 實行委員益谷氏로부터 高橋總裁, 元田, 中橋의 三相訪問會談의 顚末을 報告하고 川原氏로부터 三相及山本農相을 會見한 顚末을 報告하야 種々의 懇談한 結果 今後의 時局에 關하야는 總히 八名의 實行委員을 選定하야 黨出身閣僚의 再考에 一任할 決議를 行하고 黨出身의 閣僚를 訪問하기로 된바 會合者는 右實行委員의 歸來함을 待하야 報告를 受하기로 하고 五時半에 散會하얏다더라(東京電)

決定延期는 不能

總裁信認의 決議又는 除名等을 爲하야 文鐵兩相을 降伏케하려는 政友會의 必死的運動은 昨夜부터 今曉에 至하기 外지 猛烈하야 更히 鐵道及農相等의 首相을 訪問하얏스나 結局何等의 結果를 不見하얏스며 今日(五日)의 會合을 延期하려든 計劃도 不能인듯함으로 結局 如何히 決定을 延期할는지 以上에 至한 高橋首相이 決定하기로 되리라더라(東京電)

兩相激論
―衆議院議長官舍

衆議院議長官舍에 在한 有志懇談會에서는 再次論議를 重하고 實行委員八名은 五日午後七時更히 元田氏를 私邸에 訪問하고「吾等은 政局의 圓滿解決을 希望하야 又一次首相과 會見하기를 望한다」述하고 進退를 希望하는 事를 告한즉 元田鐵相은 此를 受容치 아니하고 多少의 激語를 相交하얏는데 委員은 次에 中橋氏를 訪하고 同樣의 意味를 述한바「君等은 閣員의 進退에 外지 干涉하는가? 今日論議로서 總裁를 信任하야 一切를 任한다 하나 是는 黨의 諸問題를 無視하는 것이 안인가」라고 逆襲하얏는데 如斯히하야 委員은 高橋首相을 訪하고「諸君의 好意를 感謝하노라 自己는 圓滿解決을 希望하노라」答하얏슴으로 委員은 辭退하고 官舍에 引退하얏다더라(東京電)

五日의 五相會見
有耶無耶終了乎

政友會에서는 黨務委員會의 次로 更히 有志議員의 懇談會를 開하고 再次論議하고 圓滿解決에 狂奔하는 中인바 其眞意는 勿論中橋元田의 兩相을 此際에 自退케하야 改造를 斷行하려는 計畫임은 今에 疑心할 餘地가 無한바이라

首相對策如何
六日定例閣議에

政府側某大官의 談에 依하면 高橋首相은 此際에 總辭職의 外에 取할 途가 無하다는 聲明으로 爲하얏스며 黨內各大臣의게 對하야는 過般改造斷念을 聲明할 時에 將來或은 總辭職의 不得已함에 至할는지도 未知라는 旨의 諒解를 得하얏슴으로 此際에 別로 更히 意見을 交換할 必要가 無하며 黨外各大臣에게 此旨를 通知하야 最後를 共히 하리라고 觀測된다더라(東京電)

後繼는 果然何人

後繼內閣組織의 大命이 再次高橋首相에게 下하리라는 說이 有하나 亦是大多數의 觀察은 加藤友三郎男이 最히 可能性이 有하다는 바 만일 政友會가 加藤男에게 對하야 何等條件을 附하게되면 加藤男은 任을 不受할터인즉 淸浦樞府議長이 될는지 或은 更히 齋藤男이 될는지 形勢는 甚히 紛糾하는 狀態를 呈하얏다더라(東京電)

高橋再任觀測

中橋, 元田兩相이 自省치 아니하고 遂히 總辭職이 된다하더라도 [illegible]

大命은 更히 高橋首相에게 下하고 三方面에는 不下하리라고 觀測하는 者가 有한데 其中出來는 高橋首相이 新政策을 實行키 爲하야 改造를 實行코저하얏스나 此로 因하야 總辭職이 된 것은 政治上窮策이라 西園寺公이나 樞密院方面에 御諮詢이 有할 터이며 如斯히 하야 大命은 再次高橋首相에게 下할 것이라 云하는 바이라(東京電)

海軍豫算減少

大正十二年度의 海軍豫算은 前年度에 比하야 三千萬圓을 減少하얏다더라(東京電)

市會議員黨別

朝京市會二級議員의 選擧結果 政友系八名, 憲政會十五名, 國民黨八名, 非政友中立十五名, 嚴正中立二名이라더라(東京電)

客月對外貿易

大藏省發表 五月中對外貿易額은 輸出一億五千四百六十三萬圓이오 輸入一億六千九百五十七萬三千圓으로 結局入超가 一千四百九十四萬三千圓에 達하얏다더라(東京電)

琿春嚴重警戒
馬賊對抗策

馬賊首領小白山이 琿春縣知事에게 脅迫狀을 送하얏는데 王縣知事는 對應策으로 在琿春吉林陸軍第二混成旅步兵第三團長楊金聲을 訪問하고 協議한 後縣內에 保衛團二百名을 增加하야 特히 警戒에 任하기로 하야 目下夜間에는 市街를 武裝巡察하야 嚴重警戒하기로 하얏다더라(琿春電)

汎太平洋商業會議
重要議題

來十月末頃「호노루루」에서 第一回汎太平洋商業會議를 開催한다함은 旣報와 如한바 同會議의 代表者는 米太平洋沿岸으로부터 出席하야 同會議에서 討議할 議題의 要項은 左와 如하다더라

●交通及運輸●
一、海底電線電信의 現狀及其缺陷改善에 關한 提案
二、一定한 航路를 設하야 特別低率을 制定하야 物에 對하야 特別低率을 制定하고 尙且一般에게 更히 適切한 便宜를 與할 事
三、現在의 通商航路를 調査하야 更히 新方面開拓을 研究할 事
四、太平洋沿岸諸國中에 自由交易地帶及自由貿易港設置에 關한 要望

●富源開發及保存●
一、全太平洋에 在한 魚族保護에 關한 方法
二、將來工業運輸의 發展에 資키 爲하야 太平洋沿岸諸國의 燃料富源의 方法
三、世界에 在한 米及砂糖問題에 關한 恐慌防止의 方策

●財政及投資●
一、國際僞造의 不安匡正에 關한 方策
二、爲替手形及他의 商業書類를 一層擴張하야 統一할 方法
三、外國貿易助長의 目的으로 太平洋沿岸諸國의 信用條件을 改善할 方策

●太平洋沿岸諸國々交關係●
一、商業紛議의 仲裁
二、太平洋問題에 關係가 有한 諸國政府及代表機關으로 外各商業會議所及此와 類似한 團體의 參加케 하야 太平洋各國의 各商業團體의 向上을 圖하며 且太平洋諸民族間에 互相協力을 目的으로 하야 活動하는 者이라더라

因하야 太平洋協會는 太平洋에 面한 當局者及商業者가 提携協力의 必要(以下略)

郵便利用增加
比前年二割增

朝鮮郵便物은 大正十年度에 三億一千七百三十七通으로 此의 日鮮人一人當의 平均數는 日本人六百十七通九分에 對하야 朝鮮人은 僅히 六通이라는 數字를 示하야 朝鮮人의 郵便物利用者는 日本人百分一에 不過하는바 此를 大正九年度와 比較하면 日本人은 九分의 增加이나 朝鮮人은 實로 二割의 高率이 되야 漸次通信利用者의 增加傾向으로 最近의 各道別一人當의 引受數는 京畿三三通, 咸北一二、七通, 慶南一一、四, 平南八、九通으로 人口의 密度及日本人의 居住關係의 濃厚로 通信率의 多寡를 示하얏더라

空證券發行
銀行被害十四萬圓

朝鮮郵船會社仁川代理店堀商店의 現物이 無한 船荷證券을 發行한 問題는 金融界에 頗히 重大視하는바 此에 對하야 銀行에 外約十四萬圓의 被害를 蒙하얏는데 被害者는 鮮銀, 殖銀, 百三十, 十八의 各銀行支店으로 其後善後策을 協議한 結果 朝鮮郵船會社에 對하야 其辨償을 要求하얏스나 朝鮮郵船會社에서는 代理店과 直接의 責任이 無함을 主張하야 其恐慌이 少치 아니함으로 本件의 解決을 期하는 中인대 今後의 交涉은 本店에서 行하게 되리라하며 仁川에서는 本問題가 解決함에 至하기 外지는 朝鮮郵船에서 取扱하는 金融關係는 一切中止하기로 決定하얏다더라

運賃引下至難
久保鐵道局長談

最近船車運賃引下의 運動이 朝鮮 [illegible]

東拓支店貸出狀況

東拓京城支店五月末現在貸出高는 定期貸出四百七十三萬三百四十一口, 一千五百三十九萬六千九百二十二口, 年賦貸出三十七萬四千二百五十二口, 合計四百十二萬七千二百八十五口 外에 勸業銀行代理貸付一口二十三萬八千八百二十八圓이라더라

煉瓦製造數

京城煉瓦製造六工場에서 製出한 普通煉瓦는 約二千三百萬個인데 其價格이 約七十三萬六千圓이라더라

京南鐵道開通式

京南鐵道會社의 天安溫泉間線路를 六月一日부터 開通하고 四日天安本社에서 開通式을 擧行하얏는데 京城에서는 總督代理西村殖産局長, 新田, 永田技師, 山澤專務部長一行及官民等이 參集하얏고 溫陽溫泉會社取役, 新聞通信社員等二百名, 公州에서 金道知事, 松本內務部長等이 參集하야 來賓이 千名에 達하얏다더라

京元線夜行列車

鐵道京管局에서는 京元線夜行列車를 增發하기 計劃中이든바 本月中에 施行하기로 決定하얏다더라

鐵道協會發會式

朝鮮鐵道協會創立總會는 旣報와 如히 來十日午後二時부터 朝鮮鐵道協會長 [illegible] 에서 開催한다더라

藥學校經營難

府內南大門通石井虎太郎氏의 經營인 京城藥學專門學校는 大正七年四月東大門外에 創立하야 [illegible] 現狀維持가 困難에 陷하얏는바 [illegible] 財團法人을 組織하야 申請中이든바 [illegible] 本年度內에 [illegible] 提出하얏다더라

金組總會終了

京畿道金融組合聯合會는 去月二十九日부터 四日間 京畿道聯合會議室에서 開催하얏든 京畿道金融組合第四回定期總會는 大正十年度財産目錄決算事項을 原案대로 可決하고 其他 [illegible] 提出하얏다더라

客車發電裝置

朝鮮線에서 現在全線에 使用하는 客車總輛數는 四百七十餘輛인데 其中發電裝置를 終了한 者는 二百二十三輛에 不過하고 其他二百五十輛은 昨年燈使用의 方式에 依하야 現在殘存하는바 夜間乘車의 不便과 不快는 勿論火災의 危險도 不少함으로 發電部에 對하야는 可及的急速히 發電裝置를 施行코저하나 豫算의 關係上尙今此를 着手치 못하얏는데 全部工事로 僅々十萬圓內外임으로 可及的希望의 實現을 圖하야 一般旅行의 愉快安全을 期함이 可하겟다더라

辭令

[illegible]

消息

[illegible]

橫說竪說

▲三四年前만하야도 東京政界의 風雲이 急하다하면 山縣의 上京, 松方의 參內, 元老會合, 御前會議하고 巨頭의 往來를 떠들더니 昨今政界의 風波는 橫田이니 高橋이니 之를 中心하야 起되는 模樣이다 ▲元老政治가 政黨政治인 同時에 時代錯誤的政治이오 領袖政治가 多數政治인 同時에 現代的政治이라하면 日本의 政治도 한 進步라 하겟스나 이것이 모다「政黨」黨利를 中心하는 [illegible] ▲民國六年에 [illegible]

商況

日本金利及市況 [illegible]

京城手形交換 [illegible]

橫濱生糸 [illegible]

外國經濟電報(五月二日) [illegible]

倫敦銀塊 [illegible]

紐育銀塊 [illegible]

育絲棉花 [illegible]

大阪三品 五日前場

限月	寄付	大引
當月	[illegible]	[illegible]
七月	[illegible]	[illegible]
八月	[illegible]	[illegible]
九月	[illegible]	[illegible]
十月	[illegible]	[illegible]
十一月	[illegible]	[illegible]

大阪株式 五日前場

株名	寄付	大引
大株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鐘紡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商船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郵船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東紡	[illegible]	[illegible]
日糖	[illegible]	[illegible]
上取	[illegible]	[illegible]

京株賣買高

五日의 京株市場의 賣買成立高는 如左하더라

甲部 三千七百六十枚
乙部 三百枚
短期 二千四百六十枚

株式市場
無味閑散

[illegible]

京取受渡高

[illegible]

各地春繭時勢

[illegible]

短期取引

[illegible]

京株賣買價(五日)

[illegible]

乙之部

[illegible]

綿糸布標準價

[illegible]

穀物標準價

[illegible]

紙物時勢

[illegible]

東亞紹介欄

眞正한 名藥

寫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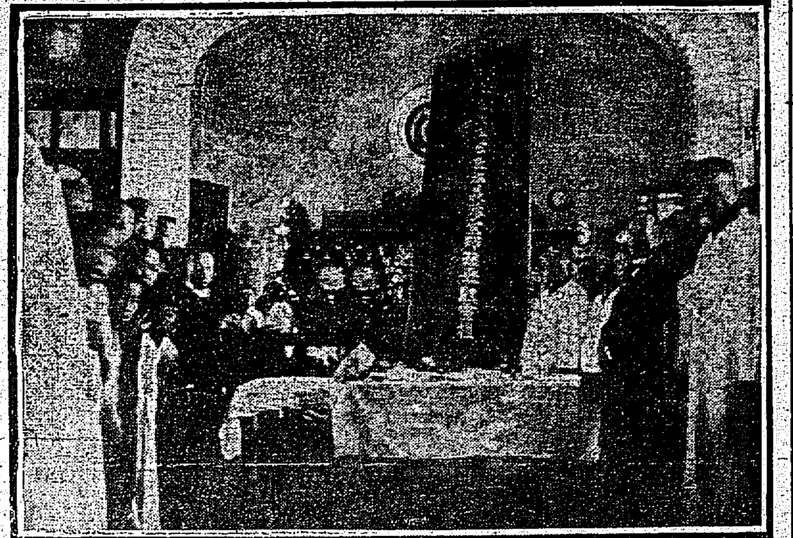
夏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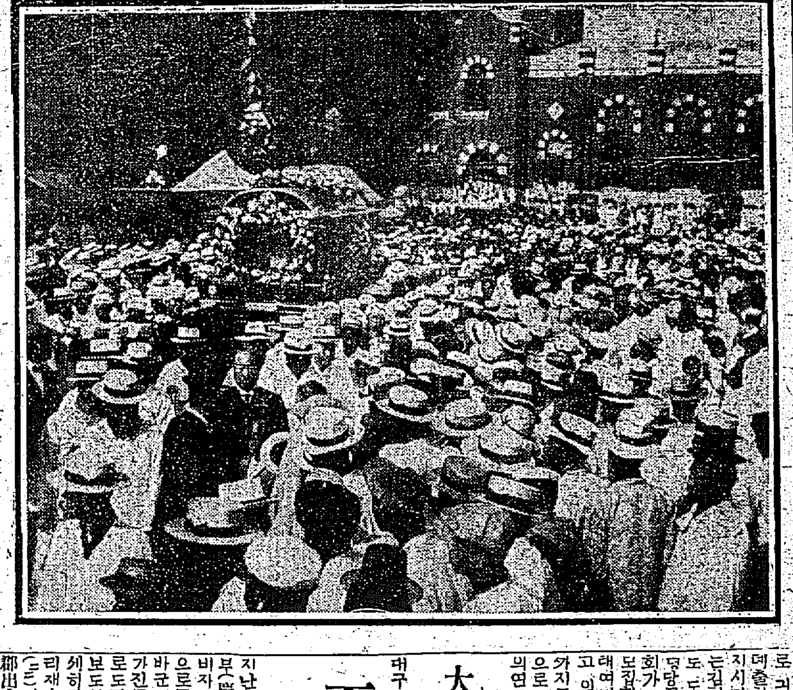
活動書海

孫氏葬送의日

근래처음보는굉장한장의 삼빅만명스승의마지막길

더욱섭々한심사를금치못하는바이라한다





조선민중의거인(民衆의巨人)으로 텬도교의삼세교주인 손병희(孫秉熙)씨의 장의는 예뎡과가치 작오일에 성대히거행하얏다 아즉 아츰 해빗이 상춘원(常春園)수풀우에빗치랴 말랴할때부터 수풀속에일홈모르는 새들의 지저귀는소리와 뜰압 연못가에 두어마리 거위의 우는소리조차 주인의 마즈막길을 못내섧어하는듯하엿스며 애수에싸힌위원과 친족들의 얼굴에는 발인준비에 밧븐빗이 나타낫다 뎡각오젼륙시가되매 령구는 유족의가슴을 더욱압흐게하는 안개에 싸힌상춘원정문을 떠나 주상 박인호(主喪朴寅浩)씨와 친족을 위시하야 다수한교인이 따러서 위령식장(慰靈式場)인 시내 경운동교당으로 향하얏다

哀愁에싸힌慰靈式

일반조객수백명

경운동교당에는 령구가 이르기젼부터 다수한교인과 일반조객이 모혀어 잇섯는대 상오칠시사십분경에 령구가교당에 이르매 즉시대교당안에 안치하고 위령식을거행하게 되얏다 먼저그교회의식에 의하야 념텬법사(念天法師)를하고 이어서 애수를도읍는듯한주악이 잇슨후 주상박인호씨를위시하야 일반신도의 분향묵념이 잇고 계속하야 일반사회의수백명 조객이 분향을 하엿는대 령구의좌우에 버려선유족들의얼굴에는 새로이 사모친듯한 슬품이넘치나오며 향연이 피어오를적마다 더운눈물이 옷깃을 적시는양은 보는사람으로도 슬품을금치못하게하야 대교당은 향연과애수의 빗으로가득 차게 되얏는데 이교당은손씨가심권에 잇기를계획하고 여러가지로 로력하다가 겨우터를다듬고주초를 노흐랴할때 곳삼작년삼월에독립선언사건으로 옥중에 그거하게 된후인하야 신병으로 보석출옥한후 바로상춘원에서 병을치료하다가 마츰내자리에 일지못하게되얏슴으로 손씨자신도 심권에교당을 보지못함을 유감으로 역이엿다하며 유족과일반교인도 일천삼빅석

人山人海

교당외의잡답 교동거리의대혼잡

교당안에는 위령식이 진행되는 상태이엇더라 대교당밧게는 스승을마즈막보내는 수천의교도가 와글와글하야 대혼잡을이루엇스며 교동골목에는 례모에례복을입은 신사의인력거가 휜차일을친듯한 구경군의사이로 겨우길을치어 왕래하며 경찰서에서는 원체다수한사람이 모힘으로인함인지 정복사복의 다수한경관을 파송하야 만일을경계하엿스며 재동네거리에서 교동일대까지는 사람이 거리에서 ... 으로인하야 거의교통이 두절된 상태이엇더라

奏樂으로敎堂을永訣

창경원사지다은광장한힝렬 교인과학생만회장자가오천

오젼아홉시가되매 위령식은 맛치고 령여는애달분 주악으로감회깁흔교당을떠나 장디인 우이동(牛耳洞)으로 향하게 되얏는대 행렬은 선두에위원이서고 그다음에종학원(宗學院)보성초등(普成初等)고등(高等)전문(專門)의네학교학생 쥐여명이서고 그다음에는 텬도교 삼세교조의암셩사손병희령구(天道敎三世敎祖義菴聖師孫秉熙靈柩)라고금자로쓴 명정과 공포가서고 이어서 사십여개의 화차(花車)와화환(花環)이서고 그다음에는 텬도교각긔관과청년회 교구(敎區)등각처에서 보내인 조긔(弔旗)이백여개가서고 그후에위원장과 중앙총부의간부가 령여를 모시어서고 령여의뒤에는 주상박인호씨와 친족이 따르고 그다음에는 녀자교인수백명과 남자교인삼천여명이 따른후 수백명의조객이 따라서 행렬에참가한사람의수효는 학생과 교인만 오천여명에달하야 행렬선두가임의 창경원을지나 박석고개를넘으라할때에야 떠나는 행렬의끗은 그대로 네거리에이르러 연도의 구경군은그장엄함에 놀나지 아니치못하얏더라

손씨장의사진 (상)교당안의위령식 (하)령구가교당을떠나는광경

十團體의代表로

평양에서김형식씨

손병희씨의장의에조의를표하기위하야평양긔독교외열단톄에서는대표로김형식(金灐植)씨를파견하얏는대 김씨는재작일밤에입경하야 작일손씨장의에 참렬하엿더라

八萬圓의脫稅事件

평양조선소주회사에서 일천삼빅석을비밀제조

평양(平壤)에서는지나간삼십일々에중대한탈세(脫稅)사건이발각되야 큰문데를 이르키엇는대 사실의내용을 드른즉 평양에잇는조선소주 주식회사(朝鮮燒酒株式會社)에서작년오월경부터 동십일월경까지 소주 검사하는 계량긔(計量器)를속히어일년총계조소주의 약삼분일이나 되는 일천삼빅석 의소주세금을내이지 아니하고 제조한 사실이지나간 삼십일々에야 발각되야추징세액(追徵稅額)일만삼천원과벌금 륙만오천 오백원에처하야일주일 이내에납부케 하얏는대 권긔회사는 재등구태랑(齋藤久太郞)씨를사장으로 자본금 오십만원중 삼십만원의 불입금으로영업하는 터인대 권긔와갓치오래동안 세무당국의 검사를 속인수단은 별로히복잡한 수단을쓴것이아니라 소주를 제조하는그릇에 계량긔를속이어 용이히발견될터인대 반년이 지내도록발각되지아니한것은검사하는세무관리와 의내용이잇지나아니한가 하는의문까지 잇다는소문도 잇는데 이번에사실이발각된것은 당초그회사 에서사용하든 소산(小山)이라는사람이 회사에서해고한것을 혐의로하야 당국에 밀고한것이라는데이에대하야 수구세무과댱(水口稅務課長)은말하되 사건은배우크고 이러한다익의 탈세는일본에서도 드문사실이외다 회사형편으로말하면 대단히 애석한바이나 이러한사실은 장래에큰폐단이됨으로 이번에단연한 처치를한것이라고말하더라

세무관리와

京都銀行强盜

서대문서에데포

시내서대문 경찰서에서는 밤금모중대범인을 데포하고 밤을새여가며 엄중히취조중인데 동서에서는 사실을비밀에 붓침으로자세한내용은 알수업스나 본사에서탐지한바에의하면 그는지나간이일오젼 세시경에 경도시금출천(京都市今出川)에잇는일본상공은행서진지뎜(日本商工銀行西陣支店)에얼골에 수건을가리우고 돌연히침입하야 당직하는하인을 협박하고 금고의쇠를빼아서 현금일천팔백원을 강탈한후 즉시자최를감초아 경성으로도망하야 시내모처에 잠복하고잇든 천규유차랑(川端留次郞)(二七)인바 맛츰내 경관의탐지한바되야 데포된것이라더라

知事에게申寃書

강서보림면민의 산림에대한불평

근일평남 강서군보림면 관포리(平南江西郡普林面館浦里)와동면서학리(棲鶴里)의인민들은평남도지사(平南道知事)에향하야신원서(申寃書)한장을데출하고 통분한뜻을 호소하며 불평을말하는중이라는대그 신원서의 대개로말하면 권긔보림면 관포리에잇는 서학산(棲鶴山)은 자긔네의 몃십대권조상적부터 자손자손 이계속하야 수목을배양하고 자긔비의 소유로 ...

수목배양 은고사하고 도로부터두수한수목을마음대로작벌하야 ...

白晝殺人

만년필갑으로 말다톰하다가

지난삼십일오후 령시삼십분에 부산본뎡일뎡목 이십일번디 하숙상인려관(釜山本町一丁目下宿商人旅館)에두류하든 동경수삼(藤井週三)(三七)은 교본복태랑(橋本福太郞)(二八) 이란자에게 단도로 왼편가슴을찔니어 즉사하얏는데 그원인은 가해자가피해자에게 만년필을팔앗는대 그갑을청구하다가 서로 싸홈이되야 마츰내이러한일이 이러낫는데 가해자는 버령뎡(大廳町)부근에서 데포하얏다더라 (부산)

寄附募集은不許

의연금은찬성

황해도중학긔성회

황해도중학긔성회(黃海道中學期成會)는조직된지가 자금일년이지낫는바그간의성적을듯건대 안악군(安岳郡)에서는일백수십여명이각기소유권재산의십분의일을 내이기로되고 또회원도이천여명에달하야 성적이 조흠으로그회에서는 실행할첫거름으로 긔부인가신청을 도령당국에 데출하엿든바 지금까지 엇더한지시가업슴으로 그 긔성회에서는김현(金鉉)씨외두사람을대표로 도령에보내여 교섭케한바도 도령당국자는말하기를 원래긔성회가 조직될당시부터 의연금을모집함에 찬성한터인즉 지금긔태여긔부하긴는허가하지아니한다하야 그 의연금모집에대하야는 어데까지든지 깁히 찬성한다하얏슴으로 그긔성회에서는 지금부터 의연금모집에활동중이라더라 (안악)

大邱에又復强盜

단도강도빈々

대구부동성뎡(大邱府東城町)에는 지난삼십일밤에 강도가나타나서 뎡지원(鄭之源)의집에 들어가 금시계를 빼아서갓다함은 임의 보도한바어니와 또삼십일오후령시 삼십분경에는 대구달성공원(大邱達城公園)아래 잡화상 일본인배천리태랑(背川利太郞)의 경영하는 상뎜에 강도가들어와서 오륙촌가량되는 단도를버여들고 돈을 내라협박하얏스나 돈이 업던때임으로 피해는업섯나는대 마츰 이웃사람이 몰녀오는 자최를듯고 즉시도망하야 종적을 감초앗고 배천은 즉시경찰서에 사실을 고발한결과 경관은비상선을치고 데포에 로력하엿스나 아즉까지 종적을 알수업다더라 (대구)

兩殿下美術展에

작일하오두시에

창덕궁리왕등비(昌德宮李王同妃)량뎐하께서는 임의보도한바와가치 작일오후두시반에 창덕궁을출발하시와 영락뎡 마술뎐

面民이駐在所襲擊

달성군가창면민의대분개 원인은순사의말잘못인가

지난오월 이십칠일에 경북경찰부(慶北警察部)에서는돌연히경비자동차(警備自動車)를급속력으로몰아 모방면으로 향하얏던바 군위(軍威)디방에서 륙혈포를 가진두사람을잡아가지고 대구로도라왓스나 비밀에붓침으로 보도치못하엿든바 그사건을자세히탐문한즉 경북영일군 흥해면상고동(興海面上古洞)장쾌식(張快植)과 장승호(張承□)리재술(李在述)과 경북영일군출생김길창(金吉昌)(三□) 두사람은 군안동군(安東郡)디방으로가서 자금을모집할작뎡으로 륙혈포두개와탄환 사십칠개를 가지고 안동군을경관이랍지하고 즉시 따라가서 데포한것이라더라 (대구)

服役後에無罪

자미잇는재판사건

의주고진면 락원동(義州古津面樂元洞)윤평국(尹平國)은 의주고관면 상고동장제식(義州古館面上古洞張濟植)과장승호(張承鎬)두명에게돈팔천 사백원을대정륙년 십일월십일에 빗으로주엇던바장제식은그돈을가지고중국방면에들어가서 중국화폐 위조에 소모하

拳銃所持者二名

경북경찰부손에군위에서데포

지나간삼일오후여달시경에경상북도달성군가창면 (慶北達城郡嘉昌面)에잇는순사주재소를 동면민삼백여명이 각々손에 몽치를들고 돌연히 습격하야 도망하는산본(山本)순사부댱을따려거의반죽게하고 각々집으로 도라갓는대 이급보를접한대구(大邱)경찰서에서는 즉시다수한 경관이 출동하야 범인을 엄탐중이라는대 그원인은 순사부댱이 그 면민에게대한말을 잘못한것이라더라 (대구)

列車에轢死

흥수원역에서

오월이십구일하오두시반경에경의선렬차가홍수(興水) 뎡거장에도착하랴할때에엇더한로동자가 어나리다가 잘못하야 한쪽다리가 차바퀴에치어 마츰내견신이 이 리저리 어드러가서 머리와 기타여러곳을 중상하고 참혹히죽엇는데 그는 황해도 연백군 개회리(延白郡開會里)(三一)이라하며시톄는 홍수주재소에서검시한후매장하얏다더라 (홍수)

勝洞基督校二部制

일년급백명을모집

시내인사동 (仁寺洞)에잇는 승동긔독학교(勝洞基督學校)에서는 오는십일부터 그학교일년급에 이부제(二部制)를 시행한다는데 시간은오후한시부터 다섯시까지며 비목일홍은 이부제라더라

强姦未遂巡査

경성복심에공소

강원도철원군 북선면회산리(江原道鐵原郡北宣面回山里)팔십팔번디하용(許鎔)(二七)이라는자는그동리에사는류홍주(柳洪周)의처윤성녀(尹姓女)(二七) 가얼골이 반々한것을보고 조치못한 생각을이르키어 항상긔회를 엿보든중 바지나간 삼월륙일에 그남편이 업는사이를타서 그집문을 쌔치고드러가서 강간을하려 하얏스나 녀자가 듯지아니함으로 목덕을팔치못하고 그후에도 역시긔회를 엿보다가 다시공소를제긔하야일간경성복심법원(京城覆審法院)에서공판을연다더라

虛無한金塊로

남의상금을먹고자

충남부여군남면 마정리(忠南扶餘郡南面馬井里)사는문재형(文在亨)은 원래아모재산도업는자로서 금덩이를 어덧다고엉터리업는 거짓말을하야 남의재산을 편취하다가 사실이발각되야공주디방법원에서오개년징역의판결언도를밧고 피고는 다시공소를 데긔하야일간 공소공판에붓칠터인데 그내용을 드른즉 피고문재형은 작년십일월경에 부여군규암면 녕암리(窺岩面鈴岩里)에사는송상휘(宋相暉)가 돈량이나 잇는것을속히어 먹으려고중간에 문재린(文在潾)이라는사람을세우고 자긔는 모산중에서 주먹덩이만한 순금덩이를 어더서 즉시방매하야 현금을다수히맛기엇는데 현금으로 두는 것은 위험한즉 착당한 토디를매수하겟다는 교묘히 거짓말을하야권긔 송상휘의토디 시가팔천오백원엇치를 살터이라고 매々계약을 데결하얏스나 이리저리 핑계하다가 결국은조치못한 생각을 내며가지고 권긔송상휘와 집에물을노아 자긔가지불할 계약한 눈서를 권부태여바리고 송가의

一個月에卅一件

오월중교통사고

경성부내와부근의교통사고를조사한즉 오월중에발생한 건수가면차 자동자권차 인력거 자면거등에부상한것이 삼십일건 이오기라차와 차의충돌이 십륙건이라더라

輔仁校創立紀念

래월일오후기념

시내수창동(需昌洞)에잇는보인학교(輔仁學校)에서는매오쉬시에그학교교우회(校友會)의주최로 창립십오주년 긔념식을 거행한다더라

姜信昌等控訴

경성복심법원에

강대련(姜大蓮)에게 복음을 나든 강신창(姜信昌)등외 칠인은 매일신에 중로큰길로 복음을나든 사개월의 징역판결 언도를 밧엇든바 피고들은이에 불복하고 다시공소를 데긔하얏다더라

京城府時間宣傳

매시일에대선전

경성부(京城府)에서는오는십일 시간선뎐일(時間宣傳日)에대하야 아당일오정에 각관공서와학교에서 는종을치며 시간에관한강연을 하게하고 부원들은 선뎐비라를 시내중요한곳과각가에서 배부하며 자동차로도배부한다더라

平壤監獄

에서 정제식과 가치 복역중이더니 정제식은옥중에서죽고 윤평국은 만긔되아 출옥하엿스나 너무도 억울함을 이기지못하야 련대채무자 장승호를 상대자로권긔 채용금지급청구소송을 작년륙월에 신의주지텽에 다시데긔하야 피차재판한결과 장제식이가 빗으로 쓴 것이판명되야 작년십월에 승소하엿는데 장승호는 불복하고 공소하엿던바 빗으로쓴 사실이분명함으로 지난달십칠일에 공소기각을당하엿다더라 (신의주)

海蔘音樂開演

해삼위

해삼위에잇는 고려나 음악회로 오늘오후 ... 아가리치는모양이며 ... 만원감(萬元館)에서 ... 임원이 세인의 ... 으로 ... 이 주최로 음악회를 연다더라

교육협회강연대

일행은예뎡과가치 오일오전십시남대문역을떠나남도로향하다 (사진은남대문역에서)

天氣豫報

日出	上午五時二〇分
日入	下午七時四〇分
晴 一日	五日午後六時
晴 六日	午後六時

◉온도비교◉ (華氏)

今年昨日(正午)	七九·七
昨年昨日(正午)	七四·一
昨年最高	九六·八

최고 七九·七 최저 七一·三

◉휴지통

▲시내돈의동에잇는 팔십삼호변소에는 판장이 썩어서 갓득이나위태한데다가 밤이되면 등불조차업슴으로 하루저녁에 수십명이오줌똥에 목욕을한다든가 ▲남마다 더러운소리만퍼어서 독자에게는 미안하지만은 이따위소리를안허칠죄가업서도 듯는체 만체하는당국자가잇슴에야엇지하라 ▲종로종각모퉁이 새로지은공동변소는 그만 또더버리엇슴은행엽에 쌍속으로못치어 지스면좃켓다는 주문이만타 ▲되로짓는다는 풍신이 바람구녕하지도못하게 쌍속에다가 양식으나가업서서 누구나 들어가기만하면 지린내에 코가막혀죽을디경이오 ▲밤이되면 못된사람들이 드러가는창계에서 그대로오줌을싸기는 버릇이잇슴으로 얌전한데하고 속에지 드러갓든사람은 오줌세례를밧는일이만타한다 ▲더욱히 바람이나 솔々불때에는 지린내가나와서 면차를기다리는사람의 코중방을헐어내라드는것은 참아 못할일이다 남대문밧파출소와가치동양데일의공동변소라하는 명예스런일홈을붓치어 줄터이니 엇더할지는것이

(依然保합) 今朝天候는快晴에各地氣配는東京騰大阪弱으로報하다 寄付는細廻으로相支하다가止際에는三十二錢을最低로三十五錢에引하야後各地氣配는大阪一스나當地는硬派의有力派의○ 限月(キン)又八(○キン) 七六八番 有力함으로止價보다僅히一文高한三十二圓三十六錢에初付하다 ▲第二節 當은亦不成에中은五十四錢으로一口有할뿐先限은兩軍共히 ... 始値四十錢을最低로三十四錢에止하다 ▲第六節 當不成에中은五十四錢에一口有할뿐先限은大阪九十 ... 公定價格 ...

賀 大田村質店

虎力丸 滋陽強壯劑 此藥은製劑精確하고 效力이偉大하야 服用後效能이無하면 代金을返呈함 大華藥房 寸虫全治丸

동아부인상회 京城鐘路二丁目 電話長一二〇四 物價低廉 品質優良 貴賤不合 即日還金 各種扇 新荷着 運動具 夏兒衣 양산 화장품 旅行具 內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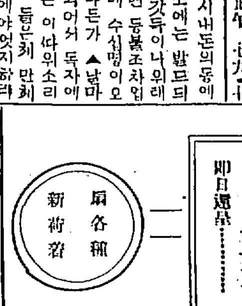
開業廣告 海成旅館 京城府黃金町一丁目五十一番地 電話本局三三二番

陳久積滯百發百中潮症神藥 破積丸 壽星堂藥房

夏節모기장大賣出 京城府公平洞七十番地 李萬協

旅行具 各種가방 廉價로팝니다 藤川商店 京城本町

朝鮮語讀本 高等國語讀本 算術問題講解 活文社書店



春秀洋靴店 獨逸과米國의既製注文이잇는 紳士用獨逸靴수와米國防水소구(혼수투)등이新荷着되얏사오니 江湖僉位는此期를勿失하시고速々注文하시압 京城府南大門通 振替京城一〇五九五番

臨時下騰夏에 江湖僉位의愛顧하심을多謝하와益々繁昌하오며 弊店에서는 萬分一이라도報答키爲하야 品質이堅固美麗한製造하야 廉價로都賣散賣하오니 倍前愛顧하시압

靈神丸 체중에단발약! 定價 製造發賣本舖 京城 朝鮮賣藥株式會社

ClibPDF - www.fastio.com

무쇠탈 (百五十二)

閔牛步

지리하던삼주일

이번사월들에는 나혼날이 첫재일요이엇다 이날은 곳고수제가 무쇠탈을 쓴철교실로 달이고가는날이며 독약으로써 그를감옥서석가을 가슴에 그리우면서이 날을기다렷더라 감옥안의 고싱을 벗기고자함일지라도 안해의몸이되야 남편에게독약을 먹이는것이 엇더할가 남편의독약에죽는후 해독케를쳐도 다시사려나지못하면 엇지할가 그시테를파버렷다가 만일 자긔남편이아나고보면 엇지할가 이려한생각으로 가슴을어지럽게하는중 가다리든 나혼날은도려왓다 이날예방원희는 츈풍이와가치 교당안에드러가 정성스러운 긔도로써하루를보내고 밤이드러집에도라오니 고수제에게서는 아무소식이업다

혹쳘수를하다가 청년옥에게들키여 그약을뻣기고 그몸까지감옥에가치지나아니하엿나죄우간궁금하기 한량업는일이매 몃차례나문밧게나가 여긔 저긔를바라보나 미쳐이르어진 교회안이라 사면이 꽉々합문이엇다 소풍이역시이모양을보나가련되지못하야「제가대감옥근처까지 가보고오지요」하고 뛰여나가더니 한시간이 지나기전에 다시돌어와서「인제왓슴니다 제가청련옥의 관사압헤가숨어 잇노란즉 고수제가 그집에서나오다가 아모말업시 이쪽지를주고 가더이다 필경누구를 식혀보내 들이라고온것이겟지요 어서보아 주십시요」하고내노앗다 원희는손끗이 떨니는것을 억지로 진뎡하여가면서 그쪽지를펴보니 오늘은첫날이되여서 맘대로 되지못하엿사오나 이달일요일에는 되도록하겟사오니 그리아시압」하엿는지라 원희는비로소 안심을하고「아々 고수제만밋이업스면 겨정할것은업다 이달일요일 까지기다리지」하엿다 이달일요일이란것은 곳돌하로날이라 이날도역시천편과가치 고대々々하엿스나 역아모소식이업더니 잇흔날저녁에야 다시편시가 잇스되「오늘도여의치 못하엿사오니 또한주일만 기다리소서」하엿더라 원래달은일과 달너서 비밀한최수에게 물건을주기는 매우어렵기도할것이다 공연히 조급히굴다가 청년옥에게 들키는이보다는차라리 날자는좀시리할지라도 조혼긔회를 기다림만 못하다고 매우 조심을하는 모양이다 원희는 이와가치 생각하고다음일요일되는 십팔일 날을기다리더니 그십팔일이 되여도 고수제에게서는아무소식이업다 삼십년래로 맛고풍상을 다격거운 방원희연만은 이쇄예일으러서는 다시떠참어볼 긔운조커업시되엿스매 이튼날은 또레빠당안에 들어가자 긔목숨이 아직한달만 더계속되기를 긔도하고 고수제의 신상에재단이 업기를 축원한후 오후여섯시가량 이나되여서 겨우맘이좀진정 되엿스매레배당을 나와서 자긔집을향하엿스나 다리가빗슬거리며 거름도 것지못하고 겨우츈풍의팔에의지하야 집에돌어가보니 문압헤서잇는사람이 잇는지라 깜작놀나 발을멈추니 그는자긔를보는동시에 압질너집으로 들어갓다 샘만한겨울날에 여섯시가되엿슨즉 사람의얼굴을 알어볼수업스매 원희는 츈풍을향하야「지금그게누구냐」하고물어보나「고수제여요」한다 그러면 일이잘되엿는가원희는굴으는것가치집안을또러들어가며 츈풍이가붐울켜는 동안에도「엇자되엿나고수제 어서좀말하게」절나는목소리로물으니「고비잘되엿슴니다 엇지면 지금은죽엇슬걸이요」근죽이랴는것이 당초의목뎍이연만은죽엇다는말에는가슴이 선뜩하야얼골빗을변하면서「엇지하여서」고「엇지하여서라니요 비어제일요일에는철교실문에서마침아무도업기에약병을손에쥐여주면서 이것을자시요 그러면살어나리다고 귀속말한즉 무쇠탈은알어들엇는지 고개만 쓰덕이며 철교실로들어갓슴니다 그는제얼굴을 아는가보아요 컴으로제손을잡을때에 그의손끗은 벌넝々떨니겟지요」한즉「그러면역시안원숭씨로군」고「그리고철교실에서 나올때에 그는아무말업시 그병을돌오주는데 밧어본즉 별서비병이겟지요 철교실안에서 아모도볼으게 마신모양이여요 그리고빈병을 주더할수가업스닛가 제게 맛긴모양이지요」원희는말을듯는중에도 자긔남편의 늙고쇠한모양을 생각하면서 쏘다지는눈물을 금하지못하며 츈풍이역시도 눈물을먹음고 말을못햇다 고「그벼에는범서독이 전신에퍼젓는지 밋커탕하를나오기전에 몸을 추시르지못하는것가치 커팔에가 매달니더니 압뜰에나와서는 조금도움직이지 못하겟지요 그모양을청년옥과 청부령이보고 가치부축하여가지고 감방으로 돌어가더니 미구에이 교회의 귀로덕당로와의사를청하여온모양임되다 귀로덕씨는그날감옥에와서철교하엿스닛가 죽시 곳돌너드러갓서요 그러닛가 엇지면벌서간밤에 죽엇기쉬웁지요 커는그벼부터 곳다른사무를보기때문에 맛키중지도못하엿다렷슴니다」하고 자세히 티약이하엿다

開業廣告

營業科目
內外新舊圖書雜誌出版販賣
朝鮮總督府敎科書指定發賣
參考日用文房諸具廉價販賣
最新流行各種和洋雜貨販賣
◉注文하시는方法은 반듯이先金이시던지代金引換으로 [illegible]
◉[illegible] 彼此不利益이多하오니 事情外에는利用치마시오

대동부인서원
大東婦人書院
振替京城一七八二番
◉送金하는方法은 貯金을利用하심이가장便利하고料金이적게드는대 [illegible] 京城府安國洞十八番地

公州慈惠醫院患者

忠淸南道公州慈惠醫院에서昨年度에施療한患者數를聞한즉合四萬三千四百十六名이오延人員八萬九千二百四十一名인바前年에比하야三千四百九十五人이增加되얏고今年一月로三月末外지患者數는八千百六十五人이며四月에는三千三百十餘名이라더라(大田)

紐峴驛客月業績

京仁線紐峴驛의五月分營業成績을聞하면當驛乘降人員數及貨物發着數量과收入額及昨年此期比較增減表는如左

▲今年五月分

乘車人員	四二、一二四人
降車人員	四五、三六八人
入場人員	三、三三三人
發送手小荷物	二一、〇〇一斤
到着手小荷物	一九、〇三三斤
發送貨物噸數	六七〇噸
到着貨物噸數	三、五七五噸
客車收入額	三一、一六五圓一一
貨車收入額	五、四六九圓六七
雜收入額	八二〇圓八四

▲昨年此期分

乘車人員	三一、八七二人
降車人員	三五、八二二人
入場人員	三、三二二人
發送手小荷物	二五、五〇七斤
到着手小荷物	三三、八七八斤
發送大貨物	二三五噸
到着大貨物	一九三噸
客車收入額	二六、七六三圓〇七
貨車收入額	九五三圓三八
雜收入額	三八七圓四六

▲昨今兩年五月分比較(△印은減)

乘車人員	一〇、二五二人
降車人員	九、五五六人
入場人員	一一人
發送手小荷物	△四、四九六斤
到着手小荷物	△四、八五五斤
發送大貨物	四三五噸
到着大貨物	三、三八二噸
客車收入額	四、四〇二圓〇四
貨車收入額	四、五一六圓二九
雜收入額	四三三圓三八

(仁川)

安岳鐵山脚戲大會

安岳鐵山鑛業會社에서去五月三十一日脚戲大會를開催하얏는바先히該鑛所附帶小學校의運動會가有한後脚戲를始하얏는바四方으로運集한觀客은人山人海를成한中大盛況을呈하얏다順序에依하야次第進行하는同時拍手聲이不絶하는裡에遺憾이업시畢了되얏는데賞品은一等大牛一頭二等中牛一頭三等白米一俵其外七等外지賞品을授與하얏다더라(東倉)

開城公普校速修會

開城第一公立普通學校에서는今回四個年程度普通學校의主要敎科目을一個年으로修得시킬目的으로速修會를開設하야左記와如히學生을募集한다더라

一、年齡 滿九歲以上十五歲未滿
一、月謝 一個月五十錢
一、募集人員 第一公普百二十名第二公普六十名(開城)

平壤端午日盛況

去月三十日은陰曆으로五月五日即端陽佳節이라古來의習慣을따라全朝鮮어느地方을勿論하고此佳節을즐기며한께遊逛하는터이나平壤으로말하면萬壽臺牧丹峯箕子林으로써此의場所를삼는도다四方으로모혀드는紳士淑女는아침날大陽빗이비최일때부터夕陽이在山토록도라가기를忘却하고鞦韆遊戲를作함은平地仙을幻出하는도다長夏一色은浿江綠水에가득찻는데消散妙曲의멀니들님은果然한가하다綾羅島늘러진버들가지에는鶯의喚友聲을傾聽하며淸流壁비든길에散步가縱橫한데新衣新服으로喧嘩自若히錦繡江山의自然景을노리함이자못壯觀이얏스며山嶺水邊에노곳을勿論하고人波를成한大盛況을致하얏더라(平壤)

錦山蔘業組合總會

錦山名産인人蔘은自來全鮮에好評을受하던바爾來數年間奸商輩의中國或은日本所産인人蔘을廉價貿來하야假裝錦蔘하야販賣한所致로大打擊을受함은一般의共知하는바이라當地蔘業家諸氏는此를憂慮하고蔘業改良과賣買上弊害를矯正키爲하야本年二月頃에蔘業組合을創立하야事務를進行하야오던中에去五月二十二日에同組合臨時總會를錦山面南山遊仙亭에開하얏는바本年採取人蔘品質을檢査키爲하야檢査員(品行方正淸廉者)을無記名投票로左와如히選擧하고其他事務執行方法은評議會에委任하얏다더라

檢査員 鄭在晉 朴昌緖 崔允楨(錦山)

大田大興里夜學所

大田郡外南面大興里에서는同里兒童의敎育機關을設하기에苦心中이든바尹熙炳君의特志로君의金庫一部를校舍로爲先代用하야每夜三十餘名의兒童을敎授한다는데南光鉉朴南植朴潤甲諸君은大田中學校生徒로서每夜敎授에從事한다더라(大田)

各地靑年團體

木浦靑年會任員會

木浦靑年會에서는東亞日報社發起在外同胞慰問會全鮮巡回幻燈映寫大講演會가六月二日當地에到着하겟다는通信을接한同時去五月三十一日午後五時南橋洞東亞醫院內에서任員會를開催하야諸般後援方針을協議하고同七時에閉會하얏다더라(木浦)

修養俱樂部館落成

金浦郡々內面北邊里修養俱樂部는創立半年에經費의困難으로一定한場所가姑無하든바本部々長吳顯基氏의發起로部館을新築키로議論이一致되야千餘圓의巨額을會員이分排各出하야去四月分부터工事에着手中이더니今般竣工하얏슴으로今月中旬에落成式을擧行할터이라더라(金浦)

午川振興會討論會

利川郡麻長面午川里振興會에서는去月二十七日午後八時부터午川里禮拜堂內에서討論會를開하얏는데「男子敎育이勝於女子敎育」이란問題로可便李鼓承林錫鉉否便崔洛金聖夏諸氏의舌戰이有하야一般聽衆에게多大한覺醒을與하고擧手로써勝負를決한바否便이得勝하고同十一時에閉會하얏다더라(利川)

育養學校設立寄附

洪原有志諸氏는現在入學難을救濟코저育養學校設立을圖하고朴貞燮崔中權都鎭升崔中圭二十五人의發起로五月四日에實行할諸般事項을討議하고義捐金募集에着手하얏는데今般共有財産으로義捐된것이左와如하다더라

南山齋川畓三十日耕晩成齋田畓七日耕修德齋田畓六日耕砥藻齋田三日耕谷會契畓一日四息耕金百圓新學契田二日耕倉垈齋田一日半耕白木契田一日耕南班齋田一日耕趙斯文契田一日半耕科契川半日耕許斯文契田二日耕方下齋田一日耕錫東齋田一日半耕崇關契金百圓金斯文契田一日耕三一契金百圓修信契田一日耕木手契田二日耕同誓契百圓同約契金六十圓昌大齋田一日半耕朴忠山文會契田一日半耕事一契田一日半耕隆契金百五十圓東南契田一日耕日新契田畓七息耕(洪原)

●自働車往復時間變更 朝鮮自働車運輸株式會社에서는湖南線汽車發着時間의變更과天安線의新設에由하야乘客의便宜를圖謀키로今番公州論山扶餘方面行과鷄山方面行의自動車發着時間을如左變更하야六月五日부터實施

▲公州、論山、扶餘間
公州發午前九時正午十二時
公州着午前十一時午後五時

▲公州、鷄山間
公州發午前八時半午後二時
公州着午後[illegible]時半午後四時
(公州)

●金剛山探勝旅行團 金剛山은朝鮮의名勝地뿐아니라世界에有名한勝地로서人々이一次探勝을圖하는바수에義州人士金贊禹等十人이金剛山探勝團을組織하야去三日에新義州驛을出發하얏는데期間은一週間이라하며歸路에는沿線都市를探勝할豫定이라더라(新義州)

平壤漫話

私立普通學校를設하라

平壤支局 一記者

우리도알기爲하야 다시말하면 우리도살기爲하야 第一먼저要求하는것이 勿論敎育이다 오늘날우리民族의生命이 오직敎育에잇슴은 누구나거의自覺한바이오 또한絶叫하는바라 다시敎育論을加할必要가업지만은 배호랴도場所가업고 가르치랴도機關이업는 오늘날우리의現象이야말로 慘憺타아니할수업다

◇ ◇ ◇

今春平壤府內各普通學校의入學志願者와收容者數를보건대

校名	志願數	收容數
崇賢女學校	三〇〇	一四七
正進女學校	一五〇	一〇〇
光成普校	五五〇	二〇〇
崇德普校	三二〇	一九四
第一普校	五一七	二〇九
第二普校	八二八	二二〇
第三普校	四二〇	一六四
第一女普校	四〇〇	一四〇
第二女普校	一八九	一二〇
計	三、六七四	一、四九四

보라 三千六百餘名兒童中에 收容된兒孩는겨우三分一可量밧게못되니 收容못된學齡兒童들은 그將次엇지될것인가?

◇ ◇ ◇

飢餓에우는乳兒에對하야 젓(乳)을줄수가업다하면 그父母되는者의가슴이 苦痛일것은 勿論이어니와 傍觀하는他人으로도 惻隱한마음을禁키어려울것이니 이는人生의本能으로乳兒의生을愛함이니 만일그러치안타는者가잇스면 이는人道에버서난者라하리로다

◇ ◇ ◇

乳兒가飢餓에叫呼함은本能으로그生을保키爲함이오 少年이普通敎育을受코저함은 亦是그人生으로서의 生을發展키爲함이라 卽젓을求함이나 敎育을要함이나 살기爲한 必然의絶叫가안인가 살기爲하야 배호기를懇願하며 絶叫하는 少年에게敎育을施與치못하고 그少年으로하야금 울며돌아서게하는 平壤各普通學校의情境 생각하면乳兒에게젓을주지못함과달을것이업슬것이다

◇ ◇ ◇

지난번平壤有志會라는 所謂平壤有志者團에서 元日新學校를復活식힌다고 委員까지選定되야三四次式會合을하얏스나 어느덧有耶無耶中에消息은멀리달아난모양이다 有志란낫스니 大槪有志라하고 社會에서尊敬을밧으면 社會에對하야 맛당히그만한功勞가잇서야當然하다 所謂平壤有志라하는이들이 果然얼마나한 物質와精神으로써社會를爲하려는지 아지못하거니와 一時的詐欺로써「名譽」나欺做하고 臨機應變하는僞稱으로써 我利만爲하는者이면 決코永遠치못하는法이다 엽헤서飢兒가젓달엇지못하고 哀呼하는것과갓치 入學難을絶叫하는소래는 平壤市中에사못친다 이를보고도冷淡하게 아모救濟方策을講究함이업스면 참말可痛할것이로다 만일平壤에서相當한人士가조금만힘쓰면 普通學校하나 私設은그리어려지안을것갓다

◇ ◇ ◇

普通學校로말하면 그經費의負擔을아모리하야도 府民이負擔할것이라 現今으로나 寄附金으로나 무엇으로던지府民이주일것이라 또한내여야될돈이라 내子息을가르치는것을내가하는것은 天이定하야준義務이다 이時局을當하야平壤府民에게懇願함은旣히所聞가되얏든私立普校一校를設立하야 우리子女의入學難을調節하라

社告

一、支局의名稱 鳥致院支局
二、支局의管轄區域 燕岐郡一圓
三、支局의位置 京釜線鳥致院驛前
四、支局의職氏名
支局長 李重喆
總務 鄭在億
記者 朴鴻緖
記者 洪範奎
外務員 李鳳雨

從前에分局이던것을支局으로昇格하옵고事業을一層擴張하얏사오니本報愛讀諸位는如此照諒하시옵소서

東亞日報社 白

主催 東亞日報醴泉分局

近郡聯合春季庭球大會

期日 六月十一日(日曜)
場所 醴泉大昌學院코-트
申込期日 六月七日까지
申込場所 東亞日報醴泉分局
(選手會費一組金一圓)

後援 醴泉靑年會

自[illegible]月 一割引大賣出
京城本町二丁目 村木時計店
電本四一七一 振替三一九〇

絹絲 東亞蠶絲株式會社

手足업는人에게急告
義手足

文藝名畫大會
◎泰西 胡蝶의장 全七卷
◎大活劇 英國觀兵式 全一卷
◎少年 孤兒 全二卷
◎米國 飛한遊戲 全一卷
團成社 電話(本)九五九番

文藝名畫大會
獅子와列車 三卷
◎燃하는圓盤 四卷
◎西는西 全五卷
◎屍의輝 全五卷
黃金館 電話二六三七番

祝金川分局設置

金川郡金川面金陵里 申寬熙
金川郡金川面 面長 任鳳準
金川邑內 代書業 方泰煥

金川郡□□面□□里 李元實
金川郡金川面□□里 代書業 方錫圭
金川郡金川面□□里 代書業 金東八
京義線金郊驛前 李汝佐
京義線金郊驛前 車周元
金川郡金川面□□里 李錫□
金川郡金川面□□里 金光道
金川郡廳 李鍾利
金川郡廳 李斗南
金川郡廳 李福□
金川郡廳 任達承
縣內面事務所一同
金川郡西泉面市邊里 魚物商 金永璇
金川郡西泉面市邊里 代書業 李範承
金川郡金川面□□里 李鼎基
金川郡外柳面□安里 李載萬
金川郡外柳面安□里 柳大熙
金川金融組合 李容邦

月城面事務所
金川郡廳 裵萬成
京義線金郊驛前 安秉麟
京義線金郊驛前 尹柴德
京義線金郊驛前 代書業 馬鎬成
京義線金郊驛前 雜貨商 張福麟
京義線金郊驛前 金在明
金川郡廳 洪承迪
金川郡金川面中山里 李錫彩
金川郡口□面□□里 韓炯秀
金川郡廳 金商爀
京義線金郊驛前 方文煥
金川郡市邊里 兎山醫院 院長 印廷洙
金川郡西泉面小邊里 鄭文圭
金川郡公立普通學校 尹範秀
金川郡廳 愼久範
金川郡金川面金陵里 金慶洙

金川郡□□面 孫興俊
金川郡金川面金陵里 韓永燁
京義線金郊驛前 具元會
京義線金郊驛前 朱達弘
金川郡□□□□ 金容淳
日耳面事務所一同
京義線金郊驛前 金泰元商店
金川郡守 朴性甫
京義線金郊驛前 金益三商店 合同運送部
西泉面事務所一同
金川郡廳 李用德
自轉車及附屬品販賣 西泉面金川郡市邊里 金聲玉商店

金川郡□□ 長春醫院 尹泰一
京義線金郊驛前 方明煥
金川郡□□面 李錫勳
金川郡金川面金陵里 安鍾大
金川郡公立普通學校 李明基